

마리아는 처녀였을까?

마리아의 실제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슈아를 출산했을 때 미리암은 처녀가 아니라 임자 있는(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여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법적으로 요셉과 혼인한 상태였지만 육체적으로 하나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미리암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면, 사형에 처해져야 할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신 22:23-24).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벌금을 내고 그녀와 결혼해야 합니다(신 22:28-29).

신 22의 율법에 따르면, 미리암은 그냥 처녀가 아니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첫째, 미리암과 요셉 모두 자신들 앞에 닥친 사형의 상황을 초월하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어야 했습니다.

둘째, 이사야 서에 나온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는 “처녀”가 아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 7:14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에서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는 일반적 용어 ‘베틀라’가 아닌, 특별히 사용된 ‘알마²’입니다. ‘알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세 번 등장합니다.

- 창 24: 43에서 리브가가 처녀라는 의미로 ‘베틀라’와 분간 없이 사용됐습니다(16절).
- 출 2:8의 ‘알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가리킵니다. 그녀 역시 처녀였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진정한(THE) ‘알마’가 될 메시아의 모친에 대한 예언적 단서가 됩니다.
- 잠 30:19에서 ‘알마’는 남자와의 관계에 사용돼 문맥상 결혼한 여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또한 메시아와 교회 사이의 신비한 관계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엡 5:32).

성경 히브리어를 알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 7장의 구절에 사용된 단어가 ‘베틀라’가 아닌 ‘알마’이기 때문에 예슈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완벽하게 예슈아께 맞아 떨어집니다.

1. 70인의 랍비들에 의해 주전(예슈아 탄생 이전) 132년에 완성된 70인역에는 사 7장의 ‘알마’가 ‘파르테노스³’라는 처녀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 번역됐습니다.
2. 창 24 장에도 ‘알마’는 처녀를 의미합니다(리브가).
3. 출 2 장에도 ‘알마’는 처녀를 의미합니다(미리암).

* מרים

¹ בתולה

² עלמה

³ παρθενος

4. 사 7장에서 ‘베틀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던 것은, 다른 법적 조건에 합한 특별한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혼한 처녀는 처녀이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한 남자에게 묶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 사 7장은 논리상 처녀를 가리킬 수 밖에 없는데, 탄생이라는 것이 기적적인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6. 사 7장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태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세 계보

예슈아에 대한 계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1 장은 주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눅 3 장은 미리암을 통한 그 분의 물리적 출생을 보여줍니다. 마 1 장은 다윗 왕으로부터 나신 그 분의 법적 혈통을 증명해 줍니다.

마 1:20-21 –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은 미리암의 태내에서 아이가 잉태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미리암이 한 일은 아기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은 그 분께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선 셋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예슈아께서 거룩하시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야 했습니다. 인류에 속하시기 위해선 물리적 육체를 가지셔야 했습니다. 이 땅의 정사에 대한 권세를 가지시기 위해선 다윗 왕실의 언약적 혈통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그저 처녀(베틀라)이기만 했다면, 예슈아께서는 다윗 보좌에 대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보통의 수정을 통해 잉태되었다면, 예슈아께서는 우릴 구원할 하늘의 능력을 못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 가운데 잉태하지 않고 혼인한 신분을 유지하는 ‘정혼’이라는 기간을 분류해두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비범한 기회를 위한 틀을 마련하시려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니라 정혼한 처녀인 미리암은 한 아들, 곧 영으로는 하나님이자 육으로는 사람이셨으며, 왕국을 합법적으로 물려 받을 분을 낳은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알마’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요셉은 모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베들레헴 태생의 이스라엘 토박이로,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중동의 배경을 가지신 탓에 검은 피부의 소유자셨을 가능성이 높고, 토라의 계명들도 지키셨을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처녀의 잉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토라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의 창조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건가요? 티끌로부터 인간을 짓는 것과 처녀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는 것 중 말입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초자연적인 기원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서는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여인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아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떠한 개인이나 종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반에 얼마나 친밀하게 관여하고자 애쓰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께서 마르레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이 세상에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 분과 같이 될 수 있게 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 아기의 모습에 하나님의 궁극의 계시와 인간의 궁극의 운명이 있습니다. 예수아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divinity)과 인간의 것(humanity)이 하나되는 것입니다.